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22일(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마이스산업과	담 당 자	• 컨벤션팀장 구미정 ☎440-1511 • 담 당 자 김기애 ☎440-151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2021 바이오·제약 인천 글로벌 콘팩스’ 인천에서 22일 개막

- 24일까지 콘퍼런스, 전시, 수출상담회 첫 통합 개최 -
- 인천이 바이오·제약 분야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로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2021 바이오·제약 인천 글로벌 콘팩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바이오·제약 산업 관련 연관 분야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콘퍼런스, 전시회, 글로벌 수출상담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합해 동시에 개최했다. KOTRA, 인천관광공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케이웨어스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6회차를 맞는 콘퍼런스는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주제로 스리랑카, 필리핀, 대한민국 세션으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특히, 기조강연이 주목되는데 이상준 셀트리온 수석부사장은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는 신 산업을 개척한 대

한민국의 대표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눈부신 성과를 일궈내기까지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前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인 박태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바이오 산업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백신주권’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안보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분야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바이오 분야의 산학연관의 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환경도 잘 갖춰진 인천 송도가 바이오 경제 및 정책을 리드하는 전세계의 바이오 수도로써 전혀 손색이 없으며,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발표해 관중석을 뜨겁게 달궜다.

올해 첫 개최되는 전시회는 관련 분야 세계적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약 80여개의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참가해 바이오 분석 · 진단, 원료·완제의약품 등 자사 제품 및 서비스전시와 기업 투자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한 동시 개최되는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촉진 간담회와 연계한 인천시 ‘바이오원부자재 국산화 공급사슬 특별관’ 운영을 통해 해당사업과 관내 공급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선보였다.

K-바이오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출상담회에는 전국 소재 제약·바이오 기업 50개사와 해외 30개국(CIS, 중동, 중남미 등) 100여개 바이어가 참여한다. 이러한 수출상담회는 국내기업과 해외바이어들의 산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높다.

박남춘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천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K-바이오 랩허브 유치 등 중앙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지로 선정되어 전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잡아 더 큰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참고

행사명		개최기간	주최/주관사
2021바이오·제약 인천 글로벌 콘펙스	제6회 바이오·제약 인천 글로벌 콘퍼런스	2021.11.22.(월)	인천광역시 / 인천관광공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1회 국제 바이오·제약 전시회	2021.11.22.(월)~24.(수)	인천광역시 / 인천관광공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케이웨어스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	2021.11.22.(월)~23.(화)	인천광역시, KOTRA / 인천관광공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관련 사진은 행사(14:50)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